

여야 정쟁으로 '민생 법안' 뒷전 우려

민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추진 방침
'김건희·檢탄핵·상설특검' 28일 본회의 분수령
'尹거부권-재표결 부결-폐기' 전철 악순환 전망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정쟁으로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 나날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한 법안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처리된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정도가 꼽힌다.

여당은 당론 발의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특별법' 처리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야당이 '52시간제 특례조항'과 '보조금 직접지원' 등에 난색을 보여 이번 본회의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이

반대하는 만큼 일단 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방안을 담은 전자상거래법과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 처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양곡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4법을 지난 21일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바 있어 여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예상되고, 상설특검과 검사 탄핵 등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재표결을 28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특검법도 동일한 패턴으로 지난달 4일 재표결에서 부결·폐기된 바 있다.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여권의 이탈표 8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초 야권에선 윤 대통령 지지를 하기로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였으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식선거법 1심에서 유죄를 받으면서 오히려 192석의 범야권에서 특검법에 반대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과 별개로 검사 탄핵과 상설 특검, 국정조사 카드로도 여권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이장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때 여당을 배제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차단막을 펴고 있다. 우선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 대표 유죄 선고에 대한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채상병 국정조사 역시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로 맞고 있다. /김진수 기자

李, 사법리스크 2차 고비...오늘 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

지역형 또 선고시 타격 불가피
무죄 땀 부담 덜고 리더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28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로 두 번째 고비를 맞는다.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게 유죄 또는 무죄가 선고될지, 그리고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량이 어떨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도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로 귀결되면서 지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이 대표에겐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번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 선고가 이 대표로선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28일 선고에서도 강도 높은 결정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열흘 간격으로 피선거권 박탈형이 두 번 연속 선고되면 이 대표는 물론 민주당이 받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권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태세다.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대화하는 이재명-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로 뿔뿔 뭉치자'는 메시지를 내면서 2·3심까지 지켜보자는 여론을 조성하려 하겠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과 차기 대권 가능성에 달리는 물음표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

선거법 1심 판결 때는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이라는 당내 공감대 속에 계파를 막론하고 일단 '단일대오'를 형성하며 대어 공세에 나섰다. 이번에는 타격감이 다를 수 있다.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당내에서 고개를 들며 '이재명 일국 체제'로부터 원심력

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강성 진명(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퇴진 운동을 더 거세게 밀어붙일 수 있으나, 그 동력이 얼마나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반면, 무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선거법 1심 선고로 안개 뚫은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고, 여권을 향해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선거법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죄라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민주, '김건희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

이재명 대표는 발언 안해... '사법부 자극' 자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4차 장외집회를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며 "또 다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이 '당신은 더 이상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해고 통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누구든지 잘못됐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김건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평범한 국민처럼 똑같이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이전의 세 차례 집회와 달리 이재명 대표가 단상에 올라 발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사법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의 집회는 30분 만에 종료됐고 시민단체 주도의 행사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에 합류했다. /김진수 기자

박지원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

페이스북에 한동훈 미래 예측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건희는 간동훈을 버린다"며 "한동훈 대표는 3각 파도를 넘지 못한다"고 예상했다. 윤건희는 '윤석열+김건희', 간동훈은 '간 보는 한동훈'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한 대표를 배신자라고 판단한다"며 "20년간 검사동일체로 살아 온 대통령은 상명하복을 원하지만 한 대표는 복종하지 않고 배신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한 대표는 본인은 술도 마시지 않고 열심히 수사

해서 그 성과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한 대표가 생각하는 '검사동일체'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검사'라는 것이며, '당신이 술 마실 때 수사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한 검사는 나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말은 한 대표가 옳지만 '윤건희'는 미동도 않는다"며 "결국 검찰과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장악한 '윤건희'에게 간동훈은 쫓겨난다"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특검은 세월이 흘러가도 국민의 힘으로 성사되고 '윤건희'는 감옥으로 간다. (그것이) 역사이고 민심이다. 민심은 과학"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고급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그골프채 아스트로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종나루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최고의 엘리트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중량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